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김은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I. 서론

‘행복’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를 수반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행복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동안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거치면서 ‘행복’에 대한 주제는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행복에 대한 사유의 시작은 윤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행복한 삶(좋은 삶)¹⁾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 여겼다(오지은 역, 2011a: 18). 고대 희랍사상가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현재 생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지속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사유하는 영역 내에서 “합리성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제한이 붙는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논의 되어오는 ‘행복’의 개념이 교육사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이지현 외3인 역, 2008a: 24)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 답습하는 경향을 반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교육목적으로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고자 하는 기초적 연구라는 점을 밝혀둔다.

최근 들어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행복과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갑자기 두드러진 관심은 아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행복’의 주제는 제기 되어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동시에 그 의미 자체가 잘못 해석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잘 드러난다. 공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관경이 지적 하듯이 "한나라의 존재와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도야를 통한 행복한 생활 창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살펴보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들기 조차한다." 이러한 원인은 지나치게 지식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렇다고 지식교육이 올바르게 전개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올바른 ‘지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 이성의 실현을 통해서 스스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은 마치 입시와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단일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정해진 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맞히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1) 좋은 삶 혹은 잘 삶 등의 용어들은 번역의 차이는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복(happiness)으로 번역하는 것을 따르기로 한다. 또한 의미상의 차이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드러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가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드러나도록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이명신, 2012: 11).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나 다름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전제는 그의 ‘행복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소멸되는 것과 소멸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그의 행복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대변해준다. “부패하고 소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고대희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자체는 인간의 유한성이 아닌 신의 영역에 있음을 인정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 보다 우위에 있는 신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합리성의 완전한 실현’에서 찾는 행복에 대해 견제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복 개념은 의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하는 행복은 인간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 영원하다고 믿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 교육이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 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명쾌하게 답을 주기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갖고 살아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교육목적으로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에 대해 논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견해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 행복의 연관성으로서 의미를 살펴 본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이 교육목적으로서 가능한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행복의 개념

행복에 대한 견해

행복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일변된다. 행복에 대한 자기실현적 입장과 쾌락주의적 입장이다(송인숙 외4인, 2012a: 181-182).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객관주의적 행복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상형, 2013a: 50).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어떠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목적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박선목, 2000a: 306). 두 번째는 쾌락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에피쿠로스일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었다(2013b: 91). 이러한 상이한 관점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은 출발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삶 혹은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복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덕(arete)’에 두었다.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어

편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인이 되는 것이다. 즉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을 때 하나의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이 모여서 결국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²⁾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발휘하는 ‘덕 혹은 탁월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보았다.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목적은 다양할지라도 이 목적들은 하나의 위계를 형성하며 질서를 이룬다는 것이다(2011b: 240).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영혼의 지각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만족이라기보다는 그 만족들이 모여서 변하지 않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정신)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과 감성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탁월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취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의 역할이다. 영혼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탁월함을 실현하도록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영혼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마지막으로 “영혼의 탁월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다(김상봉, 2004a: 87).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실현에 달려 있다. 자기실현은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 좋음’이란 영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혹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성의 역량을 강조했다면 에피쿠로스는 절제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인간마다 다양한 ‘덕’을 추구할지라도 결국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고통이 아닌 쾌락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 쾌락은 현재적이어야 한다. 과거 혹은 미래에 있을 즐거움이 아니라 현재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찾는 행복은 현재 만족해서 즐거운 상태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2013c: 109). 다분히 주관적이며 자신의 마음상태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정신적인 ‘ 좋음’에 달려있다. 육체적으로 만끽하는 차원과 다르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즐거울지라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마음이 행복함을 느껴야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언급하는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이 동반되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김상봉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인간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을 추

2)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well-being)을 뜻한다. 여기서 행복은 쾌락이나 기쁨과 같이 어떤 심리적인 만족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좋음 혹은 에우다이모니아는 업적과 달성 그리고 도덕적 탁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2011c: 241-242).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다.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외적으로 채워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주장하지만 맹목적인 쾌락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2004b: 148). 쾌락자체만을 추구해서 얻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이 바라는 것에 충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행복은 육체보다는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내면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점에는 공통적이지만 의미상에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이성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 것이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현재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누리는 쾌락뿐만 아니라 마음의 쾌락까지도 즐거워야 하고 어떠한 불안도 동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쾌락은 또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는 쾌락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정신)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것(김창환, 2003: 223)이 그가 생각하는 교육학의 과제이자 사상 전반의 문제의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은 단지 소멸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초석으로 여겼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신을 바라볼 때 올바른 지식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단지 그것은 삶에 있어 유용한 것이지만 절대적이지는 못하다. 적어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신이 인간보다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행복을 정의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다르듯이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분명한 기준과 관점이 있었다. 마치 저 멀리 보이는 배의 돛대를 향해서 파도가 쳐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보습과도 같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 인간이 신을 앎아 가는 여정'이다 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 그 만큼 신이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때 가능하다. 바로 인간의 정신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한다. 그 유한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희랍철학자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학과 이성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2004c: 188) 이러한 생각은 지금의 교육이념에 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김상봉은 이성적이고 불가피한 한계를 종교적 신앙의 길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모색을 했다는 점에서 서양윤리학의 역사에서 의의를 둔다.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행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한 것이다. 단지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지속적인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유한하고 소멸하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신의 존재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2004d: 189).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위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신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정신을 거쳐 신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은 성서의 표현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곡식의 껍질이 아니라 시냇가의 나무처럼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³⁾.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쉽게 사라지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몸과 마음이 안정을 갖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인간이 습득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니다. 배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물질을 통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성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점에 있어서 분명하다. 인간의 출발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피조된 것이다(고미숙, 홍경희, 2011: 6).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전제하는 행복의 조건은 의외로 단편적이다. 다양한 덕목을 제시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인식을 바꾸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의 개입’(intervention of God’ grace)없이는 불가능하다(M. Loriaux, 1992: 403).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은 인간스스로 완성할 수 없다. 오직 신과 합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을 영위(榮位)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복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음(mind)이 복종해야할 부분의 밑에 있으며, 마음보다 덜 귀한 것들의 위에 있으라: 마땅히 그 지배를 받아야할 분(God)의 밑에서 지배를 받으며, 지배해야할 것들의 위에서 지배하라는 것이다(김종흡 역, 1994: 281).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정신)이 위치해야할 곳에 대해 자리를 선정해둔다. 그 이유는 “마음은 자체를 잊은 듯이, 악한 욕망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점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신이 종속되어야할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다. 즉 신과 물질의 중간에 자리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넘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

3) 시편1편3절

이 신으로부터 피조 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물질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물질 자체는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 신의 밑에 위치해야 한다. 아울러 물질 위에 위치할 때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질을 자신의 위에 두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물질을 마치 전부인 듯 두기에 인간의 영혼은 행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가 정리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 교육이 추구하는 방법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하는 행복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왜 교육을 받고도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인간이 받는 교육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와 더불어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소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생각은 일치하는가? 라고 물었고, 그들은 모두 인정했다(박주영 역, 2010a: 24).

행복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바라는 것에 대한 소유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행복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사멸하는 것과 덧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유에 대해 끊임없이 욕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것, 가혹적인 운명도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2010b: 27)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상이 항구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을 바라고 소유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바라는 대상은 신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신은 상실하거나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상실해 버릴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양립될 수 없는 영속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결국 행복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이 바라는 대상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그 바라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김태규, 2011: 16).

행복에 있어서 대상의 문제는 인간이 물질보다는 그 상위의 것을 추구할 때 변함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와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간주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의 실패라는 오명을 안고 돌아왔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교육이 주는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학교가 열심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교육의 실패는 지식교육, 정서교육 혹은 도덕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안에서 '종교적 차원의 상

실'에 그 책임을 둔다(유재봉, 2011: 133). 이러한 지적은 현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여실히 문제점을 드러낸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변하거나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신을 추구하는 지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지혜⁴⁾는 행복을 내포하고 행복은 신을 내포 한다(김태규: 1997a, 136)라는 것은 행복자체는 인간이 인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이라는 그 언어 안에 이미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Ⅲ. 교육과 행복의 연관성

1. 교육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인간보다 더 우월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즉 인간이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상실한 가능성이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1997b: 139).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으로 서슴없이 인간의 '영혼(정신)'을 상정한다. 또한 그 영혼 안에 신이 점유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의 논리'이다.

행복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점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우연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전적 견해에 속하는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삶 전체 혹은 전체적 삶의 경향에 적용되는 개념이다(2008b: 24). 사실 행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흔들림 없는 '영혼(정신)'을 상정했다는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스인들의 견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유사한 점들이 드러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정신'에 있음을 강조했다. 인간이 삶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환경과 감정 기복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정신)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을 추구하는 가에는 차이가 드러난다.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변함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지적인 활동이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정신 안에 동요 없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신에 대한 사유이다. 합리성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합리성의 완전한 발휘만이 가장 신성한 영역인 것이다(이지현외3인, 2008: 25).

사실 합리성의 완전한 발휘는 현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점이다. 가령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4) 예지의 세계에 대한 앎이란 뜻과 함께 예지의 세계에 대한 앎을 획득하고 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인식 영역 전체의 새로운 앎의 체계까지도 시사한다(양명수, 1999: 91).

받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 마치 행복이 통계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학교는 취업률, 진학률 등을 거론하면서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평가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도록 강조하고 특정 상품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2012b: 180).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행복지수의 척도와 소비심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행복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단지 소비나 성취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신에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이유는 현 사회와 교육에서도 물질적 세계관과 생명관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다(정현숙, 2011: 102).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은 일시적이거나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 수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인간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을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러한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여생에서 오랜 시간동안 받는 교육이 무의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인간의 유한성을 채우기 위해 지성적인 측면에서만 전진하는 것은 또 다른 과오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입시제도일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입시제도에 한국사를 시험에 다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는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입시제도가 마치 교육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듯 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성공지향적인 교육의 역기능을 부각시켰다(최관경, 2010: 42). 이러한 교육의 부작용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발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적 기능에만 충실하게 지향한 결과로 여겨진다.

교육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인적인 차원을 고려해야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러한 것이 교육을 통해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비참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All of you want to be happy(beat) and you do not want to be miserable)”.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 명제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인간은 극히 드물 것이다. ‘누구나’ 혹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을 지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원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비참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현실을 떠나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행복함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은 일차적으로 사고(지적인 능력)를 통해 부여된다(2000b: 304). 불가피하게도 교육을 통해서 인간에게 행복은 가르쳐질 수밖에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식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측면에서 삶에 대해 사유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인 임무가 되어야 한다.

2. 행복으로서 교육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실지로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행복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살아 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 행복자체가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인해서 오는 만족감이라면 또 다른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삶이 연장될 것이다. 한나 아렌트(H. Arendt)는 “소유하려는 욕구는 상실의 두려움”으로 전거되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른 것인지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묻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고자 하는 소원은 모든 사람이 같지만 행복 자체에 관해서는 소원이 매우 다양하다.” 사람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행복 그 자체의 본질은 같아도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변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바라는 것에 대해 채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없다. 예컨대 행복은 있거나 없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성이 없다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 사람은 모두 행복한 생활을 안다는 것이다(서유경 역, 2013: 48). 그래서 사람들은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올바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학교현장에서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인지 아니면 ‘행복을 위한 준비’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비록 행복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무엇을 위한 행복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모두 그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모두 곧 행복한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바르지 못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고, 동시에 그릇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만이 행복하다(김종흠 역, 1994: 347-348).

인간의 행복은 바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바라고 얻는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기를 바라거나 혹은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보다 원하는 악을 얻은 사람이 덜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소유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

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아무리 학교교육을 많이 받았을 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긴다. 예컨대 이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거나 어렵게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상실감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행복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언급하지 않는다. 행복은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또 소유했다면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의 본질은 우연성이 아닌 영원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육체는 행복을 위한 준비이며 조건에 불과한 것이라면,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영혼(정신)에서 시작 한다고 보는 것이다.

행복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이 바르게 살게 하는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만을 충족하다보면 행복과는 멀어진다. 학교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행복자체를 고민하기 보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으로 채워져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실수가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에 대해 인식 한 후 그 인식한 행복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올바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소멸하지 않는 행복의 주체인 신을 소유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원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은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고 본다. 이런 논리라면 행복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다. 행복은 부족함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2010c: 47). 자유롭다는 것은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신을 소유함으로 오는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고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를 얻어야 좋은 교육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IV.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교육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인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교육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시대를 살던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고 가치의 실현이요 이상적 인간상의 구현”이다. 사실 인간이 생활하는 동안 교육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쉽게도 교육의 목적에는 다양한 이념이 포함 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세워주는 부분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만 제시하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행복’으로 보았다. 그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성취한 결과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결과

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양면적인 성격을 띤다. 인간이 바라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행복한 것이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불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이렇게 결과나 환경에 따라 뒤바뀐다면 그 자체로 불행하다.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경쟁 관계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경쟁관계의 성패에 따라 인간이 고유하게 추구하는 행복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행복의 기준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는 결론 밖에 도출되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아실현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 추구하는 본연의 모습은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그 이유는 교육이 지나치게 지적 탁월성의 관계에서 교육의 목적을 조명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서 경쟁 혹은 성공지향적인 가치만이 전부인 듯 비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교육이 교육을 대변해주는 것과도 같다.

학교 교육이 지적탁월성의 관계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⁵⁾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를 생각하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행복추구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는 도덕적 추구가 공존(유호중, 2004: 242)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불균형적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이 행복을 증진시켜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도록 돕기보다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규칙을 전수(import)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균형성을 상실함으로 인해 불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교육에서 단지 관심 주제로 끝나는 서는 안 된다.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상적 인간상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으로 여긴다면 ‘행복’의 개념이 교육목적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통해서 인간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면서 행복의 개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취된 욕망에 대해 바른 것인지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개념이 교육목적으로서 가능한가는 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에 들어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할 때 이상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이념은 중세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 들어오면서 편향된 모습을 나타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에서 종교적 차원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자체의 현실과 이상에서 ‘이상(理想)’ 적인 측면의 상실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이런 측면에서 유용성이 크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소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신’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가늠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숙고하도록 만들어 준다.

나딩스(N. Noddings)는 행복이 교육 목적으로 좋은 개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5) 형식적 측면은 정형화된 교과교육을 가리킨다.

비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처럼 ‘행복’의 개념이 단순하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소유했다는 개념에서 멈춘다면 나딩스의 우려처럼 주관적이거나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지식이나 배려, 성숙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우월한 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신이 인간의 정신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 지향적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입장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삶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은 단편적인 교육에 불과하다.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 이후에 대한 교육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성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다. 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신을 소유했다는 것은 지혜를 소유한 것이고 행복도 소유한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1997c: 138).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인간이 신을 이해함으로써 인해서 수반되는 행복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의 특성은 바로 이점에 있다. 즉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 안에서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신성한 영역을 상정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개념을 도입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신을 보거나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행복은 인간이 반드시 교육을 받고 소유해야 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교육목적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삶의 관점에서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죽음이후의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의 교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 자체를 행복으로 보았다.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신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물론 그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인 ‘신’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단지 행복 자체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행복을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인간이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것에 우선 점을 두었다면 그것은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표는 제한된 사람만이 누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것이 마치 행복인 듯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행복은 누구든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형화된 형식에 의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행복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뿐이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유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다양하다. 또한 수많은 견해를 피력한다. 하지만 인간의 특정한 부분을 계발시켜서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무엇을 소유해야하고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바로 이것이 그의 행복 개념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즉 인간은 신 밑에 물질 위에 위치해야 한다. 신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과신(過信)하는 것은 과욕(過慾)이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바라는 것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이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인간이 교육을 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서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안에는 학교를 떠나서는 다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잘 대변해준다. 인간이 교육을 받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교육 목적에도 내포 되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홍경희(2011).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과 교육사상.” 『인문학논총』 25, 313-341.
- 김상봉(2004). 『호모에티쿠스』. 한길사.
- 김태규(1997).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일립논총』. 5, 101-120.
- _____ (2011).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선목(2000).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서양의 행복론.”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55, 303-399.
- 박의경(2009). “종교적 좋은 삶과 정치적 좋은 삶.” 『21세기정치학회보』. 19(3), 51-71
- 송인숙 외4인(2012). “행복론 관점에서 본 현대 소비문화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비문화연구』. 15(1), 179-200.
- 양명수(1999). 『어거스틴의 인식론』. 한들출판사.
- 유호종(2004). “행복교육과 도덕교육.” 『도덕교육연구』. 16(1), 237-256.
-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 편(2003).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 교육과학사.
- 유재봉(2011). “교육의 종교적 차원과 그 정당화.” 『신앙과 학문』. 16(2), 131-146.
- 이명신(2012). “교육과 행복에 관한 탐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2), 1-22.
- 이상형(2013). 『철학자의 행복여행』. 역락.
- 정현숙(2011).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종교교육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35, 101-120.
- 최관경(2010).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사상연구회학술논문집』. 50, 32-56.
- Augustinus. A. L(386). *De beata vita by Aurelius Augustinus*. 박주영 역(2010).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 누멘.
- _____ (399-419). *De Trinitate*. Edited by Gareth B. Matthews(2002). *On the Trinity*. 김종흡 (1994). 김종흡 역(1994), 『삼위일체론』.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H. Arendt(1929). *Love and Saint Augustine*. 서유경 역(2013). 『사랑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텍스트.
- M. Loriaux(1992). ‘*The Realists and Saint Augustine: Skepticism, Psychology, and Moral Ac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ough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ly』 36(4).
- Noddings, N. (2005). *Happiness and education*. 이지현외 3인 역(2008). 『행복과 교육』. 학이당.
- Willam J. Prior. (1991). *Virtue and Knowledge: An Introduction to Ancient Greek Ethics*. 오지은 역(2011). 『덕과 지식, 그리고 행복』. 서광사.